

밀교 길라잡이 문고 '가까이...' 100권 퍼낼터

요즘 서점가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밀교 관련 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98년 설립된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출판부가 '가까이 있는 밀교'와 '밀교문화총서' 등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위덕대 출판부 설립에 산파역할을 한 박희택 교장을 만났다. 그는 먼저 "대학출판부가 학술출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각종 종립대학으로서 불자들을 위한 양서를 내놓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며 출판부 역할을 강조했다.



위덕대 출판부가 설립이후 3년 동안 내놓은 책은 5개 영역 17종이다. 그 대표적 책을 꼽으면 위덕학술총서 <불교 혼성범어 입문집>, 위덕교양신서 <대학과 대학인>, 가까이 있는 밀교 <현대 한국밀교안내서>, <밀교의 눈으로 읽는 반야심경>, <현대 한국 밀교사>, 밀교문화총서 <금강계삼십삼존의 세계>, 교양교재 <불교와 사회>, <반도체공정 실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위덕대 출판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는 '가까이 있는 밀교' 시리즈다. 문고판으로 출간되고 있는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8권이 출간됐고 앞으로 100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교장은 "불교출판에 있어 밀교분야는 사실상 등한시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불자들에게 밀교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셈이다. 앞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밀교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밀교' 시리즈를 특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덕대 출판부는 밀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출판기금제도를 활성화해 양서출판은 물론 출판부를 지성계를 이끌어가는 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0여개(4년제) 대학에서 출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위덕대 출판부는 설립된 지 3년여밖에 안되었지만 운영체계는 어느 대학 못지않을 정도로 완숙하다. 운영과 출판부부를 결정하는 출판위원회는 운영하는 한편 편집과 행정 그리고 영업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학의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학술·교양 밀교문화총서 등의 출판을 통한 학교와 학문 발전 그리고 지성의 센터로 자리 잡는 것이 위덕대 출판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는 박 교장의 말은, 비단 위덕대 출판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출판부가 상업출판계에서 소외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말이기도 하다.

김종근 기자

책과 삶

위덕대 출판부 산파역 박희택 출판과장

출판기금제도 운영 지성센터 구축 지향

늘 깨어 마음과 행동 살피라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이거룡 옮김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귀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결심으로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이거룡 옮김, 아테네)는 티베트의 스승 달라이 라마가 지난 99년 5월, 런던 웨블리 컨퍼런스 센터에서 3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꾸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텍스트는 티베트 경전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 의식'.

11세기 티베트 명사가 랑리 탕파에 의해 쓰여진 이 시편은 티베트의 영적 문학 장르인 '로종'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마음 선하게 바꾸는 방법

티베트 8편 시 통해 소개

달라이 라마는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다른 모든 중생을 자신에게 지극히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최상의 목표, 즉 중생들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소망을 성취하는 전설적인 보석을 능가해야 한다.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의 정신적인 성취를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한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두 번째 시편인 '나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린다면/ 나는 당당히 맞

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를 읽은 다음,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는 것"을 권유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나쁜 성향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폭발을 막고 나쁜 말과 행동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내가 누구를 만났든/ 나를 가장 낮은 존재로 여기며/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더 나은 자세로 받들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린다면/ 나는 당당히 맞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등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 의식'은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해탈을 얻으려는 이타적 의지가 보리심이다. 그러나 보리심은 오직 규칙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변화는 한밤 중에 문득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보리심을 나누기 위해 그 길에서 장애가 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동국대 연구교수로 있는 이거룡 씨가 옮긴 이 책은, '변화의 시작' '이타심을 통한 변화'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8편의 시' 등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gamma@buddhapa.com

본질 꿰뚫는 순간 고통 소멸

'보면 사라진다' 김열권 지음

"잠들기 전, 몸이 침대 시트에 닿으면 처음엔 딱딱하면서 차갑다가 그 느낌이 끊임없이 변해 닿는 부위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럴 때 의식은 거의 비어 있게 된다. 그 상태가 이어져 잠으로 빠져드는 순간을 알아차린다. 다시 '혹' 깨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관(觀)으로 되돌아보면 몸의 형태는 어제 밤 누웠던 그대로이고 시간은 참나 밖에 안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잠들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보이고 머릿속은 맑다 못해 청명하다..."

위빠싸나 수행자 조연숙(45) 서울 서초구



고 말한다.

신간 <보면 사라진다> (정신세계사는 현상과 본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아 욕망과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를 채득하는 위빠싸나의 수행을 체험기를 통해 보여준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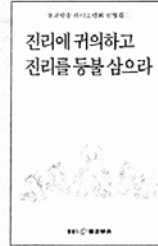
은이는 <깨달음으로 가는 오지 한 길>, <위빠싸나 열두 선사> 등을 내놓은 김열권 씨.

책은 '위빠싸나란 어떤 수행인가'부터 설명한다. 지은이는 "위빠싸나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12연기를 관할하면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이다"며 "위빠싸나 수행을 통해 생각, 말, 행동 이전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현재 하는 일과 마음이 온전히 일치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의 특징은 위빠싸나 수행법을 예비 수행과 본수행의 2단계로 나눠 이론과 그것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행자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수행법을 제시한 점은 자칫 공소해지기 쉬운 수행론에 설득력을 더한다. 값 1만2천원. 김종근 기자

스님 51명의 설법 모음집

BBS 지음 '진리에 귀의하고 진리를...'



초심자들의 마음가짐을 독려하는 하심(下心)에서부터 구참 수행자들의 수행지침 등을 두루 섭렵하는 불교방송 라디오법회 설법집 <진리에 귀의하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불교방송)는 고희종림 백양사 운문선원 방장 서용 스님의 '참 부처의 지리'에 대한 법문으로 시작한다.

욕망도 부처 마음자리의 작용이 된다고 말하는 서용 스님의 법문은 일견 과격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 위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 위에 부처의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님의 법문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욕망으로만 살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부처 마음자리를 믿고 부처 마음자리에서 과학문명을 다시 창조하면 거기에 행복과 평화의 길이 있다는 것이 서용 스님의 법문 요지다.

이 책은 불교방송이 지난 90년 5월 개국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인 '라디오 법회' 시간에 출연한 스님들 가운데 51명의 법문을 6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삶의 질서와 조화 찾는 지름길

'계율학개론' 목정배 지음



질서는 삶의 조화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좀 단순화하여 말하면 혼란 그 자체다. 정보사회로 치달을수록 인간 내면의 정서적 질서는 분열을 일으킨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질서와 조화를 찾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미 2500여년 전에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했다. 수법수제(隨犯隨制)가 원칙이다. 마음이 바로게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 잘못된 마음의 향방을 다스리는 것이 계율이다.

신간 <계율학 개론> (장경각은 계율의 시원에서부터 한역·필리·서장·대승 등 율장의 성립, 죄과의 분류 등 계율을 종합적으로 살핀 책이다. 값 9천8백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겨울	원성	이레
2	수행요론	박현	바나미
3	식발하는날	현진	호미
4	유식학강좌	고목	삼양
5	영가천도	우룡	효림
6	영가천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7	아, 일타 큰스님	김현준	효림
8	참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9	생활수행이야기	법상	불광
10	붓다는 없다	베첼러	이론과실천

도서 안내: (02)737-0695

돈황! 예술과 구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 천년의 도시로 떠나고 싶다.

돈황 가는 길

KBS (9시 뉴스) '올 여름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겨레, MBC, YTN 등 전언론이 주목한 책!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의 작가 정찬주가 불심을 품고 구법승의 길을 따라 나선 새로운 지적 여행기.

사막 속 오아시스 도시 돈황! 진리를 찾아 고독한 길을 건넌 구도승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돈황으로의 여행. 130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난 석굴벽화 속의 화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발견. 돈황 석굴벽화에서 화랑으로 추정되는 삼국인 최초 발견!

■ "전작들에서 정찬주만의 독특한 불교적 가치를 통찰하는 심미안과 수승한 문장력에 감탄한 바 없지는 않으나 <돈황가는 길>에는 한층 무르익어 마치 진신의 사리를 봉안한 다보탑을 보는 듯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 최인호(소설가)

정찬주 글·사진 | 빈양장 | 국번출판 | 296쪽 | 본문 4도 | 값 9,900원

MBC-TV <일·밤> '건강보감'

침술의 달인! 한의학계의 풍운아!
이경제 원장이 들려주는 초간편, 초강력 이침요법!

기통찬 한의사 이경제의 이침 이야기

■ 이 시대의 보기도문 실력파. 그의 이침요법은 정말 놀라운 치료법이다. 나를 포함해 동료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기다려온 책. - 이경미
■ 적은 침이지만 맞고 나면 믿기 힘들 정도로 금방 좋아짐을 보였다. 이제는 그 놀라운 효과를 신전하는 '이침전도'가 되어버렸다.

이경제 지음 | 변형판 | 256면 | 본문 4도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는 물론 각종 성인병에서 수험생의 성적 향상까지 이침으로 해결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인정한 이침요법!

부록 1.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의 스티커침 세트
2. 이침반사구 그림카드와 이 스티커침 부록 포함, 이침반사구 그림카드

TEL: 02-741-1990 FAX: 02-745-4827 http://www.gimmyoung.com 김영사